

농업전망 2003

올해 농가소득 2.7%증가 전망



농가 소득증대 위해 농업구조조정 추진 · 공공보조 늘려야
FTA 대부분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 구조조정 과제 대두

- 홍보부 -

2003년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의 세부원칙(모델리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 상한이 설정되면 고율 관세품목의 상당수 관세 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005년 이후 생산비중이 큰 고추, 참깨와 지역집중도가 높은 감자·보리·맥주맥 등이 상대적으로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2003년은 쌀의 평년단수 회복과 축산물생산 증가로 농업총생산은 2.3% 증가하나 과일부문과 축산부문의 가격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어서 2003년 농업총소득은 전년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업소득이 2.5% 감소했던 2002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과와 배 등 일부 과일과 한우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돼지고기 또한 대일수출 재개가 지연됨에 따라 농업총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

한 「농업전망 2003」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는 호당 농가소득은 농외소득이 5.6%대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농업소득이 2.5%감소하여 전년대비 약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3년 호당 농가소득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은 쌀의 평년단수 회복과 농가호수의 감소로 2.8% 증가할 전망이나 농외소득은 경기 하향안정 추세 때문에 작년의 절반수준인 3%대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농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직접지불제 등 공공보조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 국내 · 외 농업 · 농촌경제 전망 ♣

DDA 농업협상 2002년 3월부터 WTO농업위주관하에 모델리티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협상일정에 따라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등 3대 의제별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개진과

토론을 마치고 2002년 12월 18일 의장의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가 배포됨에 따라 DDA 농업협상은 모델리티 합의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과 양자협상 단계로 들어간다.

관세감축방식은 한편의 공식으로 합의되기보다는 수출입국의 관심이 적절히 반영된 절충된 방향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축폭에 대해서는 수출국이 주장하는 완전 철폐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인 감축폭은 주요 선진국 농업정책의 향방에 따라 상호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U를 제외한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최소허용보조, 특히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관세감축 방식과 감축폭은 관세상한 25%의 스위스공식을 적용하되 고율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이 조정되는 방안과 UR방식을 적용하되 고율관세가 규제되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감축이 어떠한 방식으로 타결되든 고율관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EU의 제안인 감축대상보조 55% 감축과 최소허용보조 폐지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으로, 감축 폭이 그와 유사하거나 혹은 최소허용보조가 폐지 또는 기준이 하향 조정될 경우(현재는 기준 농업총생산액의 선진국 5%, 개도국 10%) 향후 국내농업정책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별 세이프가드(SSG : Special Safeguard)는 추가적인 관세인상만이 허용되고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에 국한되는 제약이 있으나, 조건만 충족된다면 매년 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시장개방 확대의 보완적 조치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협상전망 농업협상 3대 의제별 핵심 쟁점에 대하여 미국, 케언스그룹 등 수출국과 우리나라,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NTC국가 및 수입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3월말까지 완벽한 형태의 모델리티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확정은 오는 9월의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정치적 절충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또는 2004년 3월까지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2004년 말까지 양자/다자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DDA농업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03년 DDA 농업협상은 모델리티의 도출과 국별 이행계획서 작성준비로 끝나고 2004년에는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이해당사국간 본격적인 양자협상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세계적으로는 25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며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일본-멕시코, 중국-아세안 등 협상중인 경우도 수십개에 달한다. FTA 체결은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존의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전통적 방식의 상품교역 관련 협정에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는 방식, 원거리 국가로의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활력 유지, 경제주체들에 대한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칠레와의 FTA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과의 FTA를 추진할 전망이다.

FTA는 한·일간의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부문 구조조정이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협상 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경제상황, 양국 산업의 경쟁 또는 보완 관계, 배후시장 규모, FTA 체결 의지, 기타 정치·

사회 등 경제외적 요소 등이 주로 지적되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및 균형개발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양국간의 경쟁관계가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FTA에 있어서 민감한 부문은 특별히 취급(예외, 유예, 이행기간 연장 등)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FTA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농산물은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국제화와 개방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 구조조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FTA이행 특별법'이나 WTO/DDA 협상과 FTA 체결을 고려한 '시장개방 특별법' 등이 요구된다.

농가경제 외환위기 이후 농가소득은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며, 2001년에서야 명목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실질소득은 아직도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소비동향을 보면 농가소득 증가보다 약간 높게 증가하던 농가 가계비지출은 2001년에 명목으로는 2.5% 증가하였고, 실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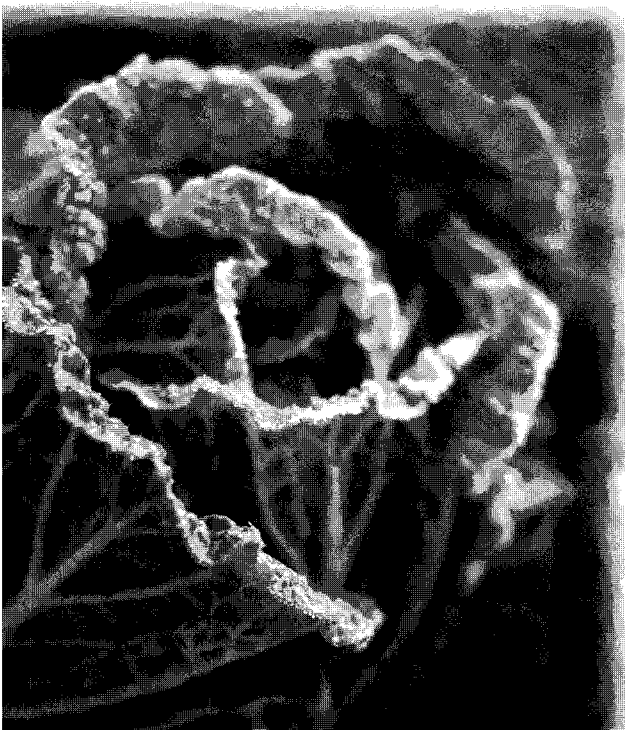
는 1.2%만 증가하여 농가소득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면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량 증대가 농업소득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외소득은 임금상승률 정도인 연간 6~7%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7% 수준이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농업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직접지불제 등 공공보조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다.

평균농가의 부채는 완화되고 있지만 3천만원 이상의 고액부채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특히 농가부채대책으로 상환 연기한 채무의 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될 2005년 이후에는 고액부채농가를 중심으로 농가부채문제가 악화될 전망이어서 자신의 부채관리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농가부채문제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

쌀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88.9kg에서 2002년에 87.3kg으로 감소하였고, 2003년 85.5~86.0kg, 2005년 83.0~83.5kg으로 전망된다. 2003년부터 실시하는 생산조정제에 따라 벼 재배면적은 2002년 1백5만3천ha에서 2003년 1백2만ha, 2005년 98만ha로 줄어들 전망이다. 2003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생산량 수준에 따라 14만 7천~15만 8천원/80kg으로 2002년의 16만



원보다 하락하고, 풍작이 들 경우에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어 재고율은 2002년 27.2%에서 2005년 34.7~43.0%(적정재고량의 2배 이상 수준)로 전망된다. 총 쌀소득(명목)은 2002년 6조9천6백억원에서 2005년에는 5조 9천2백억~6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4% 하락할 전망이다.

DDA 협상결과 고율의 관세상한이 설정되고 SSG(특별긴급구제조치제도)가 존속되며 관세할당량률 증량폭이 낮을 경우, 쌀 재협상에서 이해당사국들이 MMA증량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관세화개방을 고려하고 반면에 관세상한이 낮게 설정되고 SSG가 폐지되거나 요건이 강화될 경우에는 쌀 재협상에서 이해당사국들에게 MMA 증량을 낮게 하는 관세화유예에 협상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DDA 농업협상에서 AMS 감축폭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감축대상정책인 약정수매제도는 허용대상정책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채소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입량중 98%가 중국산인 건고추의 2001년산 유통연도(2001.8~2002.7) 수입량을 보면 1996년보다 약 3배가 증가한 5만1천8백95톤(건고추로 환산)으로 추정된다. 1인당 공급량은 최근 다시 증가추세인 반면, 소비자가격은 200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마늘 재배면적은 노동력 부족과 중국산 마늘의 수입증가 우려로 감소추세이나, 주아 재배면적의 확산에 의한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39만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생산은 마늘 재배면적의 감소와 국내 가격호조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200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2003년 이후 양파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배면적도 2002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채 과채류의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등 대부분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구조가 계절소비에서 주년소비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 방향은 다수확보다는 고품질과 신선도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박 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로 변화되고 소비의 주년화로 여름철에는 감소, 사계절 균등화되며 생산도 소비에 맞춰 노지수박은 감소, 시설수박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수박 재배면적은 감소할 전망이다. 참외 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로 전환되고 있고 소비자는 당도, 신선도를 선호, 전체 참외재배면적은 감소할 전망이다. 딸기 소비는 주로 봄철이던 것이 겨울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타 작물에 비해 생산비가 높으나 10a당 소득이 높아 재배면적은 증가할 전망이다.

과일 국내산 저장과일의 품질이 좋지 않아 상반기 과일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며 2003년 과수 재배면적은 1%(1만ha) 감소하나 단수가 증가하여 과일 총생산량은 6%(14만톤) 증가할 전망이다.

사과, 감귤, 단감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복숭아, 자두, 매실 면적은 증가할 전망이다. 2~3월 사과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이며 배 가격도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이다. 가격하락으로 전체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고 중심의 품종 편중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노지온주감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월동온주·한라봉등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며 2003년 1~5월의 네블 오렌지 수입량은 2002년보다 30%(2만 5천톤) 많을 전망이다. 2003년 단감 재배면적과 성목면적은 2002년보다 5% 감소하지만, 생산량은 8%(1만 4천톤) 많은 19만톤 전망이고 2003년 뽕은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300ha) 증가 전망이다. 2003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5천9백70ha로 전망되며 2005년까지 재배면적은 안정될 전망이다. **농업정보**